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학습관여, 가족건강성 및 학업스트레스의 관계

김은정* · 이선정** · 신효식***¹⁾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강사,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Family Strengths, and Academic Stress of Adolescents

Kim, Eun Jeong* · Lee, Seon Jeong** · Shin, Hyo Shick***¹⁾

*M.E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Ec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Ec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ways to help reduce adolescents' academic stress by exploring the influences of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and family strengths on academic stress.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445 middle school students living in Gwangju. Data were collected from self-report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with SPSS 23.0 program.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provision of learning option, democratic rules, encouragement of academic progress) and academic stres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cademic stress depending on school year,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The family strength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or school year. The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provision of learning option, democratic rules, pursuit of adequate performance, academic information, total), family strengths, and academic stres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economic status.

Second, the adolescents' academic stress was influenced by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encouragement of academic progress, democratic rules, pursuit of adequate performance) and family strengths. Approximately 30 percent of the adolescents' academic stress was explained by these variables.

Key words: 부모의 학습관여(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가족건강성(Family Strengths), 학업스트레스(Academic Stress)

1) 교신저자: Shin, HyoShick, 77 Yongbong-ro, Buk-gu, Gwangju, 500-757, Republic of Korea
Tel: 062-530-2521, Fax: 062-530-2529, E-mail: hsshin@jnu.ac.kr

I. 서론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2017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13~19세 청소년의 50.5%가 경중도의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있었고(Statistics Korea, 2017),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에 대한 부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Cho, 2005; Statistics Korea, 2014).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다른 문화권의 청소년들과 비교해서도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의 청소년들을 비교한 연구에서 한국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빈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으며,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은 학업문제였다(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0).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오늘날의 청소년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기대와 요구를 받고, 이는 과중한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이른 시기부터 부모의 과도한 교육열과 입시경쟁에 내몰리는데, 학업의 중요성은 청소년 시기 내내 강조됨으로써 학업스트레스가 만성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대두된다(M. Kim, 2016). 청소년기의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성적을 비판한 청소년의 자살, 가출, 음주, 흡연 등 청소년 일탈행동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Moon, 2006), 우울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해(M. Kim, 2016; Yoon, 2013) 학업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일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과제이다.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소진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자극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학업이나 일의 동기를 높여주거나 수행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학업에 충분히 만족스럽게 집중하는 상태로 이끌 수도 있다(H. Kim, 2016). 학업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면 학업스트레스를 견뎌라도 안녕감을 유지하거나 혹은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악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Cho, 2014).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경우라 하더라도 부모가 어떠한 지원을 제공하는가에 따라 학업스트레스가 감소될 수 있고,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A. Han, 2013). 여성의 활발한 사회 활동과 더불어 양육과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자녀를 많이 낳지 않게 되면서 자녀에게 쏟는 부모의 기대와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고(Lee, 2014) 이러한 관심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반된 견해들이 보고된다. Choi와 Lee(2003), Han(2016), Park(2008)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학업에 지나친 관여 혹은 성적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되면, 학업 및 시험관련 스트레스 뿐 아니라 우울, 시험불안, 무력감과 같은 정서적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반면, 부모의 적절한 학습관여 행동은 많은 학습량과 진로선택 등으로 인해 학업스트레스가 많아진 청소년들이 부모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더욱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게 한다(H. Kim, 2016). 또한, 학습에 대한 이해도와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등 자녀의 학업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거나 지지하는 경우, 자녀의 스트레스 요인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Kerr & Stattin, 2000; Kim & Kim, 2009; Spera, 2006).

학습관여란 부모의 다양한 양육활동 중에서 자녀의 학습과 관련하여 조력하고 행사하는 모든 행위로, 부모의 학습관여 행동은 자녀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에서 부모의 교육적 활동과 참여를 의미한다. 부모는 주요교육자로서 자녀들이 공부하는 태도와 방식 및 학교와 학습에 대한 가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녀의 초기 학업성취는 앞으로의 학습에 대한 태도 및 유능감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동기 및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간접적이고 심리적인 지원을 넘어 직접적인 관여를 통해 자녀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고자 한다(Yoon & Hong, 2006).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은 부모의 학습관여는 심리적인 압력으로 작용하여 자녀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자아존중감이 결여되며 부모에게 의존적인 학습 태도를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가정은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이며 건강한 가정은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기본적인 안정감을 준다.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 동안에도 학교와 또래집단의 영향력은 크지만, 가정은 여전히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환경요인이다. 가정 환경은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Moon, 2005). 이처럼 가정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인 공간이므로(Curran, 1983; Walsh, 1993)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요인이다. 가족의 건강성은 청소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청소년의 대처행동과도 관련된다(Ko,

2015). 가정에서 부모와의 갈등과 대화 부족은 청소년의 스트레스 유발요인으로 작용하나(Lim, 2004) 높은 가족건강성은 청소년들의 행복감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므로(Na, 2013)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관련 가족 요인으로 가족건강성에 주목하였다.

그동안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많이 수행되었으나 부모의 학습관여와 관련한 연구(Jung, 2009; H. Kim, 2016; Lee, 2014)는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며, 부모의 학습관여와 가족건강성, 학업스트레스를 통합적으로 살펴 본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부모의 학습관여는 학업의 양과 중요도가 높아지는 청소년 자녀에게는 학업과 관련한 주요한 요인이며 가족과의 관계는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가깝고도 강력한 환경이므로 이들 변인을 중심으로 학업스트레스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학습관여, 가족건강성, 학업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 생활수준)에 따라 부모의 학습관여와 가족건강성, 학업스트레스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부모의 학습관여와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를 낮추는데 필요한 요소를 찾아내어 청소년이 더욱 행복해지는 방향을 모색하고, 가정과 교육에 관련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 생활수준)에 따라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학습관여(학습선택권 부여, 민주적 규칙 제공, 적절한 성과 추구, 학업진보 격려, 학업정보 제공), 가족건강성, 학업스트레스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학습관여(학습선택권 부여, 민주적 규칙 제공, 적절한 성과 추구, 학업진보 격려, 학업정보 제공)와 가족건강성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학습관여

인간은 타고난 유전과 기질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처음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조력자이자 애정의 관계이며, 자녀는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받고 성장의 시기를 거친다. 부모가 학습에 관여하는 방법은 개인차가 있는데 다수의 부모들은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변화하는 학습관여의 유형을 보인다. Yoon(2005)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의 성적 향상을 위해 학습에 몰두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부모의 모든 행동을 부모의 학습관여로 정의하였고 Kim(2001)은 부모가 자녀의 학업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긍정적 지지, 학습압박, 부모의 학습참여, 부모의 주도적 학습 환경 조성, 학업성취 압력, 학습 성과에 대한 기대, 학습에 대한 조력 등의 행동을 포함하여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력 향상을 위해 행사하는 모든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부모의 학습관여 변인은 학업성취에 대한 압력, 학습 결과에 대한 기대, 학습에 대한 조력, 자율성의 허용 정도, 가정에서의 학습습관 통제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Seo, Sung, & Jin, 2008).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연구(Taylor & Lopez, 2005)에 의하면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자녀의 학업수행능력은 서로 연관되며, 학생들의 학업 수행은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높은 열망에서 증진된다고 하였다(Crosnoe, 2004). Mun과 Kim(2003)도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학습관여와 자녀의 학업성취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으며, 특히 가정 중심 학습지원 행동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부모가 자녀의 학습과정에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보이는 경우 자녀의 학업성취 및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함께 올라가기도 하나, 부모가 개입한 만큼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의 상승과 함께 자녀의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은 더 높아지는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하기도 한다(Kim & Kim, 2009). 부모의 부정적인 학습관여 요인인 부모의 압박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갖는 교육적 관심이나 압력 수준을 뜻하는 것으로(Park, 1996), 학업성취, 석차, 가정학습, 과제를

확인, 시험 준비 등에 대한 기대심리인데, 부모의 기대 심리가 클수록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압력으로 인식하게 된다. 즉, 자녀는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대해 부모로부터 높은 기대나 압력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면 부모의 학습관여는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동기, 흥미, 태도, 가치관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Cho, 2011). 이처럼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녀들에게 외부에서 가해지는 심리적인 압력으로 작용하여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부모의 학습관여와 통제가 학업성취나 자아개념과 같은 지적, 정의적 요인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부수적으로 학생들의 학업 및 시험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자녀들이 경험하는 학업관련 스트레스는 발달 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의 하나가 된다(Lee & Larson, 1996). Hong과 Lee(2012)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관심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습관여행동 또한 늘어난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녀가 부모의 학습관여행동 정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 때는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내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함으로써 학업성취를 높일 수 있지만 부모의 학습관여를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학업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심하면 학업소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Kim & Choi, 2011).

선행연구에 의하면,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부모로부터 학습관여를 많이 받는다고 인식하기도 하고(Jo, 2015; Jung, 2009; Lee, 2015), 남녀 학생 간 부모의 학습관여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M. Han, 2013; Lee, 2013). 학년에 따라서는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Lee, 2015),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부모의 학습관여 중 학업 진보 격려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고 나머지 요인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Jo, 2015)도 있다. 생활수준의 경우, Lee(2013)의 연구에서는 생활수준에 따라 부모의 학습관여는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Choo와 Lim(2007), M. Han(2013), Jo(2015), Joung과 Kim(2008)은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여를 하며, 학업지원행동도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2.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이란 가족원 개개인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올바르고 적합하여 집단으로서의 가족체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정도라고 정의한다(Jung, 2011; Yoo, 2004). 건강가족적 관점(strong family perspectives)은 삶에 대한 긍정적, 낙관적 관점으로 모든 가족은 강점을 가지고 있고, 도전과 잠재적 성장의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한다. 가족의 강점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강점을 찾을 수 있고 개발할 수 있으며, 미래의 긍정적인 성장과 변화의 기초가 된다. 건강한 가족에서 성장한 사람이 안정적으로 자신을 돌보고 건강한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가족과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긍정적인 측면과 건강성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Yoo, 2001). 가족건강성의 이러한 관점은 청소년기에 경험할 수 밖에 없는 학습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루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Moon(2005)은 가족환경이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가족 환경 중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가족형태 및 어머니의 취업 여부 등 가족의 구조적 환경보다 가족의 정서적 환경이 청소년의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가족의 정서적 환경은 부모의 영향을 받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간의 관계형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 Choi(1993)는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비행, 학업중단, 부적응행동과 같이 드러나는 위기상황 외에 개인내적인 위기상황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가족건강성은 성별, 학년, 생활수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데 성별에 따른 가족건강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연구(Choi, 2013), 가족건강성의 하위요인 중 의사소통 및 유대감에서만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높고 다른 요인과 전체 가족건강성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Yang(2016)의 연구가 있으나 많은 연구(Cho, 2015; Jung, 2011; Kim, 2011; K. Lee, 2012; Lim, 2005; Nam, 2009)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 가족건강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년의 경우, Choi(2016)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 보다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하였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Lim(2005)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높은 집단의 가족건강성이 높았으나 Cho(2015)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학년에 따른 가족건강성

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학년에 따른 가족건강성 수준은 연구 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생활수준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경우,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의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Byun(2009), Yun(2015)의 연구,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의 건강성을 높게 지각한 Choi(2013), Kim(2009), Lim(2005), Yang(2016)의 연구,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가족건강도가 높다는 Kwon(2003)의 연구 등이 있으며, Kim(2011)도 생활이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가족건강성은 높다고 하였다.

3. 학업스트레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스트레스란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신체적 긴장 상태를 말한다.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은 외모, 물질, 학업, 부모, 친구 등 다양한데 그 중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학업으로 나타나며 (Jang, 2014; Jo, 2004; Lee, 2005;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1) 학업스트레스는 우울(Lim & Chung, 2009; Moon & Jwa, 2008) 뿐만 아니라 청소년 비행, 자살, 정신건강 등 다양한 방향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Kang, 2004; Lim & Chung, 2009). Han(2012)은 과도한 학업스트레스를 받게 될 경우 생활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였고, Chang, Kim, Auh와 Jung(2012)의 학업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생활습관 조사에서 학업스트레스 정도가 심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흡연 및 흡입제 경험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과도한 학업스트레스가 불건전한 생활습관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성공적인 사회 적응과 건전한 발달과업의 달성을 위해서 청소년 시기부터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Ko, 2011).

학업스트레스는 공부나 시험, 과외활동 등의 학업수행 및 성취와 관련해서 경험하는 긴장이나 초조감, 걱정, 심리적 부담의 상태를 말하며(Lee, 2007) 정규 학교 학업과 그 이외에 학교 또는 과외학습 등 여러 교육활동으로 인해 경험하는 부정적 심리 상태를 일컫는다(Park, 2008). 특히 중학생 시기부터는 학업량이 증가할 뿐 아니라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하여 성적과 시험,

공부에 예민해지고, 성적으로 교사로부터 평가를 받으며, 친구 간의 경쟁이 심화되므로 학교 내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A. Han, 2013). 학업스트레스는 다양한 신체적·심리적·행동적 부적응을 초래할 가능성은 있으나 학업 문제로 좌절되고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상황과 마주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정도에 따라 학업스트레스가 주는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다(Park, 2009). 학업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원 연구가 활발히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는 연구에 따라 상반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학업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연구 (Back, 2017; Bae, 2009; Cho, 2005; E. Lee, 2012)가 있는가 하면, Cho(2007), Cho(2014), Jeong(2011), Yoon(2013)의 연구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학업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학 입시에 가까워져 학업에 대한 중압감이 많이 작용하고 부모님의 과도한 기대심리로 인해 학원이나 과외 등의 문제로 더 많은 학업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Jeong, 2011; Jeong & Kim, 2008). 생활수준의 경우, Bae(2009)의 연구에서는 생활수준에 따라 학업스트레스는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Ryu(2010)는 경제적 어려움은 청소년의 학습 보충을 어렵게 하여 학업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4. 부모의 학습관여, 가족건강성과 학업스트레스

부모의 학습관여와 학업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Jung(2009)은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와 학업스트레스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가지며, 부모의 적절한 관심과 지도가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Lee(2011)는 부모가 자녀의 학습방식을 존중하고, 학습정보를 제공하며 바람직한 조언을 할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낮아진다고 하였으며, Lee(2014)는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녀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부모가 자녀의 학습 성과에 따라 자녀를 평가하지 않고 문제 해결적인 태도로 학업행동을 검토해준다면 자녀의 학업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

였다. Jeong(2014)도 부모의 학습관여는 아동의 학습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데, 민주적인 태도로 자녀를 인정하고 학습에 관해 대화를 많이 하고 자율적인 선택권을 부여하는 기회를 많이 줄수록, 또 자녀를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녀 당사자의 성과에 대해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행위를 많이 할수록 자녀의 학습스트레스를 의미있게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부모의 적절한 학습관여행동은 많은 학습량과 진로선택 등으로 인해 학습스트레스가 많아진 청소년들이 부모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더욱 안정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부모가 학습정보를 제공하고 자녀의 학습방식을 존중하는 긍정적 학습관여행동을 할 때 자녀는 학습에 열의를 갖고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학습을 수행하게 된다(Kim, 2008). 그러나 부모의 학습관여는 학습스트레스에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상반된 연구들도 있다. An, Oh와 Kim(2012)은 자녀의 학력 향상을 위해 부모가 지나친 개입과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녀에게 부담과 긴장으로 작용하여 학습스트레스를 높이게 된다고 하였고, 부모의 학습에 대한 기대가 지나쳐 압력으로 작용한다면 이는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과적으로 무력감을 초래하게 된다(Park, 2006)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관여할 때 자녀가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학습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부모의 바람직한 학습관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H. Kim, 2016).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습관여를 학습선택권 부여, 민주적 규칙 제공, 적절한 성과 추구, 학습진보 격려, 학습정보 제공 등의 긍정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 학습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습 선택권 부여는 자녀가 공부할 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 공부하는가에 관해서 되도록 자녀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고, 민주적인 규칙 제공은 자녀의 학습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규칙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적절한 성과 추구는 시험 점수나 등수 등 자녀의 학습 성과에 따라 자녀를 평가하지 않고 문제 해결적인 태도로 자녀의 학습행동을 검토해 주는 것을 말하며, 학습진보격려는 자녀의 학습관여행동이나 성적을 형제, 자매, 친구 등과 비교하지 않고 자녀의 고유 맥락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학습정보제공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한 방법이나 학습에 필요한 정보 등을 탐구하고 모았다가 자녀가 필요할 때 제공하는 것이다(Lim, 1998, as cited in Lee, 2011, P. 10).

청소년 스스로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은 청소년의 건강한 적응과 발달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Lim, 2013). 가족건강성이 학습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으나,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심리적 측면 및 학교생활적응 등 개인의 적응과 발달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학습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Ko(2015)는 가정의 건강성은 청소년의 발달과 스트레스 조절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고, Wi(2012)는 가족건강성은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심리적 안녕감을 형성하는 변인이며, 건강한 가족 관계를 통해 형성된 개인의 성격은 타인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여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형성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Lim(2013)도 가족이 건강한 가치관 및 신념을 공유할 때 청소년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노력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를 위로하는 등의 효율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여 가족건강성과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자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광주광역시 소재 2개의 중학교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 12월 2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질문지 470부를 배부하여 460부(회수율: 97.9%)를 회수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한 15부를 제외하고 총 445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조사 도구

1) 일반적 특성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학습관여, 가족건강성,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445		
Variables	Category	N(%)	Variables	Category	N(%)
Gender	Male	224(50.3)	Economic Status (n=441)	Upper	89(20.2)
	Female	221(49.7)		Mid-upper	132(29.9)
School Year	2'nd	123(27.6)		Middle	194(44.0)
	3'rd	322(72.4)		Mid-lower	20(4.5)
				Lower	6(1.4)

학업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성별, 학년, 생활수준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생활수준의 경우, 상, 중상, 중, 중하, 하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나 분석에서는 상과 중상을 '상'으로, 중, 중하, 하를 '중 이하'로 결합하였다.

2) 부모의 학습관여

부모의 학습관여는 Kim(2001)의 '부모의 학습관여'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Deci(1995)가 제안한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관여하는 네 가지 행동요인(공부 방법에 대한 선택권 부여, 적절한 규칙의 민주적 제공, 학업과정에 대한 문제 해결적 접근, 자녀의 학업적 진보를 격려)에 Lim(1998)의 학습정보 제공을 추가한 후 중복되는 일부 문항을 삭제 통합하여 30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학습선택권 부여'에 관한 6문항, '민주적 규칙 제공'에 관한 6문항, '적정한 성과 추구'에 관한 6문항, '학업진보 격려'에 관한 6문항, '학업정보 제공'에 관한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 '매우 그렇다'에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학습관여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학습관여 척도의 각 하위영역 신뢰도는 학습선택권 부여 .78, 민주적 규칙 제공 .74, 적정한 성과 추구 .79, 학업 진보 격려 .73, 학업정보 제공 .83이었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3이었다.

3) 가족건강성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은 Yoo(2004)의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를 요인 분석하여 4개 영역의 27문항을 구성한 Lee(200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건강성은 가족존중 및 애정,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및 유대감, 재정적 안정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 '매우 그렇다'에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이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건강성 척도의 신뢰도는 .97이었다.

4)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는 Oh(1993)의 '학업스트레스' 척도에서 학습과 무관한 진로, 학교환경, 주위환경과 관련된 척도를 제외하고 학습과 관련된 '학교학습'과 '과외학습'의 31문항으로 구성된 Park(200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교 학업스트레스와 과외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수업', '성적', '부모압력' 등 세 요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수업'요인은 숙제와 수업내용에 관한 것이고 '성적'요인은 성적에 대한 부담과 경쟁의식에 관한 내용이며 '부모압력'요인은 학업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와 평가에 대한 내용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 '매우 그렇다'에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많은 것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는 .97이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퍼센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고, t -test, Pearson의 상관관계,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 생활수준)에 따른 부모의 학습관여, 가족건강성, 학업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 -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부모의 학습관여 및 가족건강성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 후

Table 2. The Differences in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Variables		N	Provision of Learning Option	Democratic Rules	Pursuit of Adequate Performance	Encouragement of Academic Progress	Academic Information	Total
Gender	Male	224	3.46(.73)	3.50(.72)	3.34(.71)	3.45(.73)	3.19(.74)	3.39(.60)
	Female	221	3.68(.66)	3.63(.68)	3.39(.73)	3.63(.71)	3.15(.87)	3.49(.59)
	<i>t</i>		-3.32***	-2.00*	-.66	-2.59**	.56	-1.87
School Year	2'nd	123	3.46(.77)	3.50(.76)	3.38(.86)	3.44(.77)	3.20(.82)	3.40(.70)
	3'rd	322	3.61(.67)	3.59(.67)	3.36(.66)	3.58(.70)	3.16(.80)	3.46(.55)
	<i>t</i>		-1.93	-1.19	.16	-1.71	.47	-.89
Economic Status	Upper	221	3.67(.70)	3.66(.74)	3.50(.74)	3.57(.72)	3.30(.83)	3.54(.62)
	Below the Middle	220	3.47(.68)	3.47(.65)	3.24(.68)	3.51(.73)	3.05(.77)	3.35(.56)
	<i>F</i>		3.10**	2.73**	3.88***	.81	3.28***	3.40***

* $p < .05$ ** $p < .01$ *** $p < .001$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학습관여, 가족 건강성, 학업스트레스의 차이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학습관여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학습관여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학습 선택권 부여, 민주적 규칙 제

공, 학업 진보 격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부모로부터 학습 선택권, 민주적 규칙 제공, 학업 진보 격려를 더 받았다. 학년에 따른 부모의 학습관여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학습 선택권 부여, 민주적 규칙 제공, 적절한 성과 추구, 학업 정보 제공, 학습 관여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생활수준이 '상'으로 높은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학습 선택권을 더 부여하고 민주적 규칙을 제공하며 적절한 성과를 추구하고 학업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는 등 전체 학습관여 수준이 높았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건강성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Table 3. The Differences in Family Strengths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Variables		N	Family Strengths
Gender	Male	224	3.86(.74)
	Female	221	3.84(.71)
	<i>t</i>		.20
School Year	2'nd	123	3.85(.80)
	3'rd	322	3.85(.70)
	<i>t</i>		-.10
Economic Status	Upper	221	4.02(.69)
	Below the Middle	219	3.69(.74)
	<i>t</i>		4.79***

*** $p < .001$

Table 4. The Differences in Academic Stress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i>M(SD)</i>	
Variables		<i>N</i>	Academic Stress	
Gender	Male	224	2.35(.87)	
	Female	221	2.52(.81)	
	<i>t</i>		-2.20*	
School Year	2'nd	123	2.59(.88)	
	3'rd	322	2.37(.82)	
	<i>t</i>		2.40*	
Economic Status	Upper	221	2.35(.86)	
	Below the Middle	220	2.52(.82)	
	<i>F</i>		-2.16*	

* $p < .05$

성별과 학년에 따라 가족건강성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생활수준이 ‘상’인 집단이 느끼는 가족건강성은 생활수준이 ‘중 이하’인 집단에 비해 높았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차이를 살펴보면<Table 4>, 성별, 학년, 생활수준에 따라 학업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3학년이 2학년 보다, 생활수준이 ‘상’인 집단이 ‘중 이하’인 집단에 비해 학업스트레스가 낮았다.

2.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학습관여와 가족건강성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학습관여와 가족건강성이 학업스트

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에 앞서 부모의 학습관여, 가족건강성과 학업스트레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5>. 학업스트레스에 부모의 학습관여(학습선택권 부여, 민주적 규칙 제공, 적정한 성과 추구, 학업 진보 격려, 학업 정보 제공)와 가족건강성이 유의한 부(-)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관여 중 ‘민주적 규칙 제공’과 가장 높은 상관관을 보였다.

부모의 학습관여와 가족건강성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회귀가정의 만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계수와 DW(Durbin Watson) 계수를 조사하였다. VIF는 1.73~4.34로 10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고, DW 계수도 1.90으로 2에 가까워 잔차 간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 가정은 만족스럽다고 볼 수 있다.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학업 진보 격려($\beta = -.28, p < .001$), 민주적 규칙 제공($\beta = -.27,$

Table 5. Correlations Among the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Family Strengths, and Academic Stress

	1	2	3	4	5	6
1. Provision of Learning Option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2. Democratic Rules	.73***					
3. Pursuit of Adequate Performance	.69***	.75***				
4. Encouragement of Academic Progress	.55***	.76***	.55***			
5. Academic Information	.40***	.46***	.70***	.28***		
6. Family Strengths	.50***	.51***	.61***	.34***	.55***	
7. Academic Stress	-.41***	-.50***	-.36***	-.49***	-.26***	-.32***

*** $p < .001$

Table 6. Examining Influence of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and Family Strengths on Academic Stress

Variables		B	SE	β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Provision of Learning Option	-0.13	.08	-0.11
	Democratic Rules	-0.32	.10	-.27**
	Pursuit of Adequate Performance	-0.25	.09	-.21**
	Encouragement of Academic Progress	-0.33	.07	-.28***
	Academic Information	-0.11	.06	-0.10
Family Strengths		-0.13	.06	-0.11*
$F=31.36.*** R^2=.30 DW=1.90$				

* $p<.05$, ** $p<.01$, *** $p<.001$

$p<.01$), 적절한 성과 추구($\beta=-.21, p<.01$), 가족건강성($\beta=-.11, p<.05$)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은 학업스트레스를 30%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부모의 학습관여 중 학업 진보 격려가 높을수록, 민주적 규칙 제공이 많을수록, 적절한 성과 추구 정도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는 낮았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학습관여, 가족건강성, 학업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고,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학습관여와 가족건강성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학습관여는 학습선택권 부여, 민주적 규칙 제공, 학업 진보 격려 등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가족건강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학업스트레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로부터 더 많은 학습 선택권을 부여받고, 적절한 규칙을 민주적으로 제공 받으며, 학업 진보에 대한 격려를 더 많이 받았다. Jung(2009)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습 선택권 부여, 민주적 규칙 제공, 적절한 성과 추구, 학업 진보 격려 등의 학습관여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온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학업스트레스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성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는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Back(2017), Bae(2009),

Cho(2005), Chung(1998), E. Lee(2012)의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대체로 학교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가 지지된 반면, Cho(2007), Cho(2014), Oh와 Chun(1994), Yoon(2013)의 연구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학업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이유에 대해 Cho(2007)는 남학생이 공격성, 반항행동, 비행 등을 포함한 행동문제가 여학생보다 많고, 집중력, 규칙수준, 대화능력, 인간관계 등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장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A. Han(2013), Oh(2013)의 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차이가 없고 비슷한 수준의 학업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부모의 학습관여, 가족건강성, 학업스트레스의 경우, 부모의 학습관여와 가족건강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학업스트레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중학교 2학년이 3학년에 비해 더 높은 학업스트레스 수준을 보였다. 학교급에 따른 학업스트레스의 수준은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높고(Park & Kim, 2008),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 학교 급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연구(M. Kim, 2016)나 동급학교 학년 간 학업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Back(2017), Bae(2009), Han(2017)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중학교 2학년이 3학년 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한 이유는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이 12월로 학년이 끝나는 시기이므로 2학년이 고등학교 입시 준비가 시작되는 3학년으로의 진급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생활수준에 따른 부모의 학습관여, 가족건강성, 학업스트레스의 경우, 부모의 학습관여(학습선택권 부여, 민주적 규칙 제공,

적정한 성과 추구, 학업 정보 제공, 학습관여 전체), 가족건강성, 학업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수준에 따라 부모의 학습관여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Lee(2013)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나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여를 하며, 학업지원행동도 더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들(Choo & Lim, 2007; Joung & Kim, 2008)에 의해 지지되었다. 또한 경제수준이 상인 집단이 하 집단보다 전체적인 학습관여가 높게 나타나고, 학습관여의 하위요인 중 적정성과 추구하고 학업정보 제공에서 상 집단이 하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Jo(2015)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바쁜 경제활동으로 인해 학업적 지원이나 지지를 잘 받지 못하게 되어 교육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Jo, 2015; Joung & Kim, 2008). 생활수준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경우,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의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Byun(2009), Yun(2015)의 연구,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의 건강성을 높게 지각한 Kim(2009)의 연구,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가족건강도가 높다는 Kwon(200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월평균 수입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에 대해 Kim(2011)은 생활의 안정으로 인해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통합성이 도모되기 때문에 평균 수입이 높으면 가족건강성은 높다고 하였다. 생활수준에 따른 학업스트레스의 경우, Bae(2009)의 연구에서는 생활수준에 따라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빈곤층과 비빈곤층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를 비교한 Ryu(2010)의 연구에 의하면 빈곤층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비빈곤층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은 청소년의 학습 보충을 어렵게 하고 이는 낮은 학업성취로 이어져 학업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생활수준은 가족원들에게 여유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이 건강성을 유지하고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하며, 청소년의 학업에 따른 스트레스와도 관련된 자원이 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학업 진보 격려, 민주적 규칙 제공, 적절한 성과 추구, 가족건강성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 부모의 학습관여 중 학업 진보 격려가 높을수록, 민주적 규칙 제공이 많을수록, 적절한 성

과를 추구할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는 낮았다. 이는 자녀의 학습방식을 존중하며, 학습정보를 제공하고 바람직하게 조언할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Lee(2011)의 연구, 부모의 학습관여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Lee(201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며, 부모의 학습관여 하위요인 중 민주 규칙 제공과 학업진보 격려가 학업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Jeong(2014)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영향 요인으로 밝혀진 결과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가족건강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Kim(2008), Lim(2005), Nam(2009), Park(2006) 등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가족이 건강하면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잘 할 수 있지만, 역기능일 때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한 Park(2012)의 주장처럼 가족의 건강성 수준은 과중한 학업에 시달리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를 낮추는데 부모의 직접적인 학습 관여가 더 영향력이 있었으나 가족건강성이 학업스트레스 영향 요인임이 드러난 결과를 통해, 청소년기는 발달특성상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적응을 위해서는 가족의 영향력이 여전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에 부모의 학업 진보 격려와 민주적 규칙 제공, 적절한 성과 추구하고 같은 학습관여가 영향을 미쳤다. 부모들이 자녀의 학습에 효율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함을 보여준 결과이다.

특히 학업 진보 격려는 학업스트레스와 가장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가 자녀의 학습 행동이나 성적을 친구나 형제나 자매들과 비교하거나 절대적인 수치에 따라 평가하기 보다는 자녀가 이전보다 향상되거나 노력을 다한 경우 적극적인 격려와 칭찬을 통해 자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자녀와 학습 관련 규칙들을 정함에 있어, 규칙의 필요성과 규칙으로 인해 발생할 결과에 대해 대화를 나눔으로써 자녀 스스로 규칙을 받아들일도록 하는 노력을 한다면

자녀가 학업 수행 과정과 결과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자녀의 학업 관련 사항을 결정할 때 가족회의 등을 개최하여 자녀를 참여시킴으로써 자발적인 학습 행동을 꾀해야 한다. 더불어 청소년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가족회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을 공유하는 가족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을 구상할 때도 가정에서 민주적 규칙을 세우는 방법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의 점수나 등수 등 학업 성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문제해결적인 태도로 자녀의 학습과정을 검토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청소년기는 대학 입시와 진로 선택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수행해 가는 시기이므로 부모는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 자녀의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가족건강성은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다. 가족 내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가족원간의 유대감이 높으며 가족 내에서 문제해결 능력이 있고 서로 존중하고 애정이 많은 건강한 가족일수록 그 가족의 구성원은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는 가족과의 건강한 관계가 학업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이다. 따라서 학업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는 학생들을 상담하거나 교육을 할 때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관련된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여 청소년이 학업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는 자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의 건강성 수준은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환경이 아닌 가족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청소년도 가족의 일원으로써 가족 간 의사소통, 유대감 증진, 애정과 존중, 역할공유 등을 통해 가족건강성을 강화시키는데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나 사회 차원에서도 가족의 건강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홍보가 필요하리라 본다. 특히, 가정 교과는 교육과정 내용 요소에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가족’, ‘가족 관계’, ‘가족의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가족건강성 구성요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과이다. 가정과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가족의 건강성을 진단하고 청소년 입장에서 개선점 혹은 노력할 점 등을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는 가정의 생활수준이 높은 경우에 낮았다. 가정의 생활수준이 높은 경우 부모의 학습관여도

높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생활수준은 부모의 시간적, 경제적 여건과 관련되므로 학업 관련 선택을 보다 수월하게 해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생활수준이 학업스트레스의 차이를 만들지라도 생활수준과 상관없이 학업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이를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선정에 위한 표본 설정에 한계가 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2개의 중학교 2, 3학년층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청소년에 대한 내용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측정 대상 지역을 보다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습관여와 가족건강성을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변인으로 보았으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학생 개인적인 특성과 학교 및 사회적인 요인들을 포함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An, J. Y., Oh, M. Y., & Kim, J. S. (2012). The effect of maternal learning involvement behavior perceived by children to their academic stress and moderating effect of optimism and peer support.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1(3), 241-254.
- Back, J. H. (2017). *Influence of academic stress on somatization symptoms and emotional regulation in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oong University, Busan, Korea.
- Bae, K. W. (2009). *A study on the career choice and the academic stress by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Byun, J. H. (2009). *The effect of family strength on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perceived by the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GyeongNam, Korea.
- Chang, H. Y., Kim, J. H., Auh, S. Y., & Jung, I. K. (2012). An influence of academic stress on the life-style behaviors and mental health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Home Economics Education*, 24(3), 57-72.
- Cho, A. M. (2005).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3(3), 137-155.
- Cho, H. J. (2014). *Self-compassion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academic stress and well-be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Cho, H. N. (2011). *The relationship of the parental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happiness on adolescents : The mediation effect of achievement-goal orientation and optim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GyeongGi, Korea.
- Cho, K. R. (2007). *Academic stress symptoms of 3rd year high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academic stress reason and counter measu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yungNam, Korea.
- Cho, M. R. (2015).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ength and self-concept perceived by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Choi, I. S. (2016). *The effects of adolescents' sport participation on their family streng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Buk, Korea.
- Choi, M. R., & Lee, I. H. (2003). The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2), 363-383.
- Choi, Y. R. (201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family strengths and self efficacy perceived by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Choi, Y. S. (1993). The types of family system and psychological distance in family perceived by adolescent child.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1(1), 159-175.
- Choo, S. Y., & Lim, S. M.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ucture and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al income and parental involvement,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tudent's procrastina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1(3), 497-512.
- Chung, S. I. (1998). *A study on daily stress and adjustment depending on children's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Crosnoe, R. (2004). Social capital and the interplay of families and school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 267-280.
- Curran, D. (1983). *Traits of a healthy family*. Minneapolis: Winston Press.
- Han, A. R. (2013). *The effects of academic stress and parents' educational support on middle school students'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Han, C. H. (2017). *A study on an effect of music circle's activities that help reducing the stress level of study for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 Han, J. G. (2016). A influence of parent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and overprotective attitudes on the test anxiety of high school female stud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17(3), 153-169. doi:10.15753/aje.2016.09.17.3.153
- Han, M. Y. (2013). *The effect of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on the career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u University, GyeongGi, Korea.
- Han, S. Y. (2012). A study of relationship among physical symptoms, mental health according to stress factors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

-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12), 5800-5807.
- Hong, Y. J., & Lee, J. Y. (2012).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and academic self-efficac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between parental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1(2), 325-342.
- Jang, K. S. (2014). *The effect of adolescent's stress on delinquency: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ncep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Jeong, E. S., & Kim, G. S. (2008). Relationship of academic stress in middle school and PSTR responses.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6(2), 71-81.
- Jeong, H. J. (2014). *Relationship among students' perceived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academic motivation and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 Jeong, M. H.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chool attitu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jin University, GyeongGi, Korea.
- Jo, J. H. (2015). *The influence of parental academic expectation and learning involvement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hmyook University, Seoul, Korea.
- Jo, M. Y. (2004).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the stressors from school on depression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Moderating effect focusing on the stress cop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GyeongGi, Korea.
- Joung, O. S., & Kim, Y. H. (2008).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in education & academic motivation of early adolescents on the quality of friendship.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3(2), 1-36.
- Jung, J. Y. (2011). *Effects of temperament, family strength and social support on ego-resilience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Jung, K. T. (2009). *Relations of parents' involvement type in academic activities of their children to mental stress and academic self-efficacy recognized by second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GangWon, Korea.
- Kang, I. S.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related with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mental health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Korea.
- Kerr, M., & Stattin, H. (2000). What parent know, how they know it, and several forms of adolescent adjustment: Further support for a reinterpretation of monito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6, 366-380.
- Kim, H. J. (2009). *A study on the impact which teenagers' perception of the healthiness of their families will have on their self-ident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W. (2016). *Moderating effects of adolescents'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and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behavior on the relation between academic stress, academic burnout and academic engag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 Kim, J. B., & Kim, J. Y. (2009). A longitudinal analysis of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expectation, involvement, and children's psychological stress mediated by learning outcomes and academic self-concep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3(2), 389-412.
- Kim, J. D. (2001). *The effect of the type of parent's commitment to study on the academic motivation of the chi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 Kim, J. U., & Choi, M. S. (2011). The effects of family function and ego identity on career decision-making of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0(3), 175-196.
- Kim, M. K. (2016). *The effect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academic stress on depression: The moderating effect of distress toler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O. (2011). *A study on the effect of family health, emotional*

- intelligence on the youth's filial piety conscious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sanHyo University, Incheon, Korea.
- Kim, Y. S. (2008). *The relationships of mothers' learning involvement type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with academic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Korea.
- Ko, G. B. (2011). *Stress and psychosomatic medicine*. Seoul: Ilchokak.
- Ko, J. L. (2015). *The relationship of adolescents' academic stress, mental health, addiction to smartphone and suicidal ideation: Moderation effects of ego-resili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Venture University, Seoul, Korea.
- Kwon, D. H. (2003). *The study on family health and self-respect perceived by children in adolescent peri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Lee, B. R. (2013). *The influences of learning motivation, self-regulated learning and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upon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 Lee, E. K. (2012). *The relationships among stress, social, and school adjustment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angWon, Korea.
- Lee, J. Y. (2011). *Correlation between children's academic stress, parents' learning involvement behavior and agg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K. H.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engths and life satisfaction perceived by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Lee, K. Y. (2005). *A study on the stress perception and stress coping strategy of the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u University, GyeongGi, Korea.
- Lee, M., & Larson, R. (1996). Effectiveness of coping in adolescence: The case of Korea examination st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4), 851-869.
- Lee, S. B. (2014). *The effect of girl's middle school student's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on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Lee, S. J. (2009). The family strengths and perceptions of future parent's roles in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8(2), 301-311.
- Lee, S. Y.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s stress and social support·self-resil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cheon, Korea.
- Lee, W. S. (2015). *The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failure tolerance in the relations between perceived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and academic burnout*.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 Lim, E. M., & Chung, S. S. (2009). The changes of youths' stress and depression and the long-term effects of stress on the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6(3), 99-121.
- Lim, J. A. (2005). *A study on the adolescents' family strengths and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Lim, J. Y. (2013). *The effect of family strength and self-differentiation on the stress coping strategies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Lim, S. O. (2004). *Effect influencing to academic self-efficacy of middle school students by dealing with study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Ulsan, Korea.
- Moon, K. S. (2006).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suicidal impulse in adolescence: Mediating role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7(5), 143-157.
- Moon, S. K. (2005). An analysis of prediction variables affecting adolescents' parent-child relationship.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0(3), 105-125.

- Moon, Y. J., & Jwa, H. S. (2008).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psychological health in adolescents: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regul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38, 353-379.
- Mun, E. S., & Kim, C. H. (2003).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perceptions of parental involvement and the academic motivation and achievement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7(2), 271-288.
- Na, H. J. (2013). *Moderating effects of adolescents' self-regulatory ability and family healthy on the relation between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and coping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 Nam, Y. J. (2009). *Impact on juvenile's school adaptation by family strengths: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by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0). *Korea youth index V: A comparative study on youth health(Comparison of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Seoul: Author.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1). *Korean survey on the health of youth and children in 2010*. Seoul: Author.
- Oh, J. H. (2013).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in relations of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of parents and academic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ChungNam, Korea.
- Oh, M. H., & Chun, S. M. (1994). Analysis of academic stressors and symptoms of juveniles and effects of meditation training on academic stress reduction.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15, 63-96.
- Park, H. J. (2009). *Relation of academical stress, locus of control,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K. H. (2008).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hild-perceived mother's expectation level and school work stress: Focusing on stress coping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S. H., & Kim, H. H.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and adolescents' academic stress and learned helplessnes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5(3), 159-182.
- Park, S. H. (200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hildren's helpless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S. J. (1996). *The relationship among children's learning alienation, coping behavior, and their perceptions of parents' achievement pressu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Park, M.-S.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ddle school students' stress from studying and the cellular phone addiction: With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fun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Pyeongtaek University, GyeongGi, Korea.
- Ryu, J. Y. (2010). *On the academic stres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with public welfare support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GyeongNam, Korea.
- Seo, M. H., Sung, M. H., & Jin, E. Y. (2008). Analysis of mother's education involvement type.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29(1), 141-161.
- Spera, C. (2006). Adolescents' perceptions of parental goals, practices, and styles in relation to their motivation and achievement. *Journal of Early Adolescent*, 26, 456-490.
- Statistics Korea,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4). *2014 Statistics of youth*. Daejeon: Author.
- Statistics Korea,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7). *2017 Statistics of youth*. Daejeon: Author.
- Taylor, R. D., & Lopez, E. I. (2005). Family management practice, school achievement, and problem behavior in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Mediating processes.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6, 39-49.
- Walsh, F. (1993). *Conceptualization of normal family processes*. In

- F. Walsh (Ed.). *Normal family processes* (2nd ed., 1-25). NewYork: Guilford.
- Wi, J. H. (2012).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 among children's perceived family strength, self-resilience, social support, stress-coping behavio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 Yang, Y. M. (2016). *A study on family strengths, emphatic ability and feeling of happiness recognized by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Yoo, Y. J. (2001). *Health family research*. Seoul: Gyomoon Publishers.
- Yoo, Y. J. (2004).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family strengths scale for strengthening the family. *Journal of family relations*, 9(2), 119-151.
- Yoon, I. S. (2005).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involvement in learning and child's motivation and self-regulating learning abil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Buk, Korea.
- Yoon, M. S., & Hong, C. Y. (2006).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involvement in education, subject-specific interests,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18(2), 139-155.
- Yoon, Y. J. (2013). *A study on the effect of emotional clarity on the adolescents' depression caused by academic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 Yun, S. Y. (2015).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family strength, creative personality, and career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국문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학습관여, 가족건강성, 학업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고,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와 가족건강성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부모의 바람직한 역할과 건강한 가족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의 학업스트레스 감소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학습관여는 학습선택권 부여, 민주적 규칙 제공, 학업 진보 격려 등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가족건강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학업스트레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부모의 학습관여, 가족건강성, 학업스트레스의 경우, 부모의 학습관여와 가족건강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학업스트레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생활수준에 따른 부모의 학습관여, 가족건강성, 학업스트레스의 경우, 부모의 학습관여(학습선택권 부여, 민주적 규칙 제공, 적절한 성과 추구, 학업 정보 제공, 학습관여 전체), 가족건강성, 학업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학업 진보 격려, 민주적 규칙 제공, 적절한 성과 추구, 가족건강성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은 학업스트레스를 30%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부모의 학습관여 중 학업에 대한 진보를 격려할수록, 민주적 규칙을 제공할수록, 적절한 성과를 추구할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는 낮았다.

■ 논문접수일자: 2018년 11월 12일, 논문심사일자: 2018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자: 2019년 3월 5일